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서울시 지방세 체납은 6조 6,725억원이고 매년 평균 1조3,345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체납 지방세 징수률은 17.2%로 대구광역시 41.2% 광주광역시 39.8%에 비교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체납세금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개인 월별 지급액 한도 100만원은 26년 전인 1995년 6월 책정된 금액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고,

더욱이 2021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40만원 이상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소득세 납부로 실질 포상금은 약 25%가 감액되며, 체납 세금 징수 동기부여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도액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체납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서울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